

〈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 - 위원단 선발 2차 서류 평가 〉

이름	윤제인
1.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5줄 내외 : 진부한 소개 내용은 삼가주세요.)	
<p>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을 4번째로 캠프에 참여하게 된 금옥중학교 3학년 윤제인입니다. 저는 처음 이 캠프에 참여하였을 때, 단순히 이 캠프를 통해서 저보다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배우자는 자세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캠프 내에서 진행되는 입법청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중 2의 나이로 17회 임시회의에 처음 참가한 이후 13회 임시회의에서는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서 18회 임시회의 때는 의장단 서기로서 일반의원/위원단/의장단 모두를 경험해 보며 이번 캠프 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청소년 인권함양과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2.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위원장, 간사, 서기) 중 1순위와 2순위를 밝히고, 왜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말하시오. (10줄 내외) * 처음 신청서에 선택하셨던 내용이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최종 결정해주세요.	
<p>저는 1순위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지원하고 싶으며, 2순위는 학생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했듯, 13회 정기회의 외교통상 위원회 간사이자, “동북아 역사 재단 관련 법률안 개정” 팀의 팀장으로서 촉박한 시간 내에 입법청원안, 피피티,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을 되살리며 위원장님의 팀 총괄을 도우며 여러모로 위원장, 간사로서 공적인 리더십과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의 사적 관계로 인해 공적인 의원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깨달음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간사로서 한 위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며 위원회 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와 시간관리 등에 대하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18회 임시회의에 의장단 서기로서 참가하며,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 3이었던 의장단 일원들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측면의 장단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장단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지금껏 봐왔던 위원회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각 위원회라는 커다란 틀로 임시회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였던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2일차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건을 바꾸게 된 학생권익위원회의 법안 상정과 수정을 도우며, 각 위원회 별로 안건 상정도 중요하지만 위원장과 간사, 간사와 서기, 그리고 위원단과 의원들의 교류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장단 심사 당시 위원장과 간사, 서기 사이의 갈등과 의견 불일치로 심사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와, 캠프 1일차 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서기와 간사의 분열을 보는 등의 여러 실례를 제 3자 입장에서 보며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광주 의장단 멘토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에 학생권익이나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고 경험한 위원단의 성향의 장, 단점을 고루 활동하여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p> <p>Q. 혹시 신청서에 지원한 위원회와 지금 현재 선택하신 위원회가 달라지신 건가요? A. <u>다릅니다. 1순위를 학생권익위원회 위원장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u></p>	
3. 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3줄 내외 : 공지사항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기재)	
<p>위원단이란 한 위원회의 대표이자 리더로서 5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의의 진행을 맡게 되며, 위원장의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과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과 진행 상황 보고, 그리고 본회의 1,2때 심사보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로서 위원단은 대표의식 뿐만 아니라, 위원장은 회의진행, 간사는 회의과정에서의 위원장 보조, 서기는 서기록 작성과 같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의원들과 의장단 사이에서의 징검다리 역할로서 상호 교류와 피드백,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p>	
4.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세요. (10줄 내외)	
<p>저는 8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으로서 현재 위원회 내에 진행 중인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지역 팀장으로서 활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캠페인 인원이 다소 부족하여 정치법제위원회 내에 모든 의원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돌린</p>	

후, 캠페인 참여 가능하신 분들 한해서 단체 채팅방 구성, 팀장 선출, 내용 전달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무산이 될 뻔한 캠페인이었지만, 서울/경기 거주 지역 의원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캠페인 자체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하였고, 다른 지역 캠페인도 원활하게 진행 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지역 팀장으로서 13명의 팀원들과 함께 2차에 걸친 회의 또한 진행하며, 회의 중에 캠페인 진행 장소, 시간, 참여 횟수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전체 팀장들과 교류하는 과정 또한 거쳤습니다. 주제 변경 과정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결과로 4개의 지역 중 가장 먼저 캠페인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캠페인 주제와 활동내용 결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제가 앞서서 많은 인력을 모으고 또 캠페인 참여를 독려, 회의 진행을 하며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의원님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회의 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처음 참가하는 분들이 안건교류와 첨삭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고르게 입법청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이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활동명 기재)
또는 이번 청소년 국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체명 기재)

저는 기자단 활동을 찾던 중 우연히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기자단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5기 국제부 기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7회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17회 임시회의, 13회 정기회의, 18회 임시회의, 3월 총회, 5월 총회를 참석하였으며, 현재도 8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모의국회 활동은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지역구 청소년 1,2기 중등부 부대표, KPELAS 사회과학 학회 사무국 팀장, 학생참여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저희 “제 14회 정기회의 & 청소년국회” 프로그램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다른 단체의 캠프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5~7줄로 요약해주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주최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4번째 참가하며, 이 프로그램은 어느 캠프와 같이 단순히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듣는 캠프가 아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하는 캠프로서 모의국회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5개의 위원회에서 각자 준비한 입법청원안 중 2개를 선정하여, 수정하고 소본회의, 본회의에 상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팀워크와 배려심이 중요시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기에 3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원님들과 서로서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캠프에 재 참여을 또한 높은 캠프입니다. 또한 다른 청소년 단체들과 다르게 현직 국회의원들의 자문을 받으며, 2003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7. 현재 지원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3:1이 넘는데요, 본인이 반드시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0줄 내외 : 구체적인 활동 포부를 밝혀주세요.)

저는 이번 캠프 참여를 4번째로써, 일반의원, 위원단, 의장단 모두를 경험해보았기에 누구보다 3일간 입법청원 과정과 각각의 시간배분, 의원님들과 의장단과의 상호교류와 의사소통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활동의 순서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한 나만의 내공이 쌓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캠프 때는 13회 정기회의 때 간사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입법청원 팀을 분배 할 때도 캠프 2번 째 참가자의 비율을 고루 나누어 입법청원안과 피피티 구성에서 비중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장단 서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단 내에서의 조율과 위원회 담당 의장단과 위원회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정기회의 때는 첫째 날 대통령령, 시행령 등으로 인하여 그날 밤에 법안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법안 발표와 선정부터 꼼꼼하게 대통령령과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외교법을 국제법과 혼동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에 걸려 입법청원을 늦게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2번의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지적하며 중간에 법안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둘째 날 의장단 제출 시에 많은 위원회들이 시간제한을 어겨서 안건을 소본회

의에 상정시키지 못하거나, 벌칙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분배와 인력 분배를 철저히 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위원회 안건 가결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회의 법률안 가결을 반대하여 단체로 반대표를 찍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당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개정한 법률인 만큼 의도적으로 가결과 부결을 목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캠프 기간에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9. 위원장/간사/서기에 선발된다면 사전 교육 (오프라인 혹은 전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나요?

네

10. 신청하신 이번 캠프는 “입법청원” 하며 법안을 만드는 캠프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위원단에 배정받으신다면, 해당 위원회에 어떤 법안을 상정하시겠습니까?
(10줄 내외 :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발의 이유를 간략히 적어주세요.)

<외교통상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현재 탈북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초 적응, 교육시설의 개수가 부족한 점과, 2016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 “우리에게 탈북자라는 核 미사일이 있다” 처럼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저는 현재 북한 이탈주민(탈북자) 지원 재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제 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하생략-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을 탈북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탈북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우선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상호 연결망과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의 협력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16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 30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하생략-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재단 내에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 하에 탈북자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력체인 탈북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학생권익위원회 - 청소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고용학생들의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과다하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허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 근로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을 이에 대해 정해진 학교 수업일, 토,일요일 등의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으로 나누어 청소년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4개의 항을 신설 하여 명시하고 싶습니다.

제69조(근로시간) ①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학교 수업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나누어 규제한다.

②학생들은 학교수업일의 경우 수업 이후에 2시간, 토, 일요일 등과 학교 재량 공휴일은 3시간, 방학기간에는 6시간으로 지정한다. (위 내용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하루 실시 일 수와 일치하게 지정한다.)

③ 위에 명시된 학교 재량 공휴일과 방학기간은, 학교장의 직인이 있는 증명서 또는, 재학중인 학교 학생증과 학사력 등을 제시하여 증명한다.

④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처벌한다.

11. 위원단을 말지 못하더라도, 이번 14회 정기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실 건가요?
서류평가나 전화면접에서 탈락한다면 “일반 청소년 의원”으로 법안을 만들게 되십니다.
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 예약금이 지불된 상태이므로 신청서 뒤 동의 서명하셨던 안내 중 <기간별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네

12. 위원단으로 선발되시고 캠프에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시면 캠페인 봉사시간 2시간 외에 위원단 4시간 봉사시간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저희 단체는 봉사시간을 발행하지만 생활기록부 입력가능여부는 재학 중이신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인하지 않으시거나 뒤늦게 봉사시간 입력문제 때문에 캠프 취소는 불가능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 봉사 일시 : 8월 2일 화요일 13시 ~ 17시
- 봉사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 봉사 내용 : 청소년 권익신장과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 캠페인 참여
- 발행 기관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 담당자 : 윤지희 팀장
- 연락처 : 1544-8438

● 저희 단체 프로그램은 단순히 봉사시간이나 생활기록부 스펙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점 동의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17회 1차 임시회의 부터 이번 14회 정기회의 까지 총 4번의 정기, 임시회의 참석, 8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단순히 스펙을 위한 활동이 아닌 제 경험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매 활동을 여기며,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년째 활동을 하며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 내 -

㉠ 현재 의장단, 위원단 신청이 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면접만으로 선발한다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진심으로 이번 캠프에서 간사와 서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다시 받아, 지원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지원자 모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선발 결과를 공지할 때, 합격자의 서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7월 8일 자정부터 7월 15일 자정까지 서류를 작성하신 지원자는 “2차 서류평가 - 홍길동”을 메일 제목으로 하여 yassembly2003@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㉟ 현재는 모든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종료되고 방학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시간이 비교적 여유롭다고 판단합니다. 성실하게 위 문항에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정당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yassembly2003@gmail.com으로 서류마감 이전에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㊱ 7월 16~17일 동안 서류채점이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전화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7월 18일 오후에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문자를 발송하여 개별 연락드립니다.

㊲ 전화면접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제 12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